

‘생활안전’ 평가 전국서 빛났다…광주 자치구 ‘1위’

광주 남구가 행정안전부 2022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지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지수를 유지했다.

특히 감염병 부문에서는 감염병 알림서비스 제공 등 정책 추진 효과로 최상위 수준인 1등급에 안착했으며, 화재 및 자살 분야에서도 전년보다 2단계 상승한 2등급을 기록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감염병과 화재, 범죄, 자살, 교통사고, 생활안전 6개 분야 통계를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또 분야별 안전 수준에 따라 안전지수를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행안부에서 운영하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2.2등급

경로당 252곳 등 취약지 연중 방역

공사현장·전통시장 등 특별조사

는 생활안전정보 시스템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남구는 행안부에서 지난 2021년 통계 기준으로 실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평균 2.2등급의 안전지수를 기록했다.

광주시 자치구들의 평균 등급은 ▲동구 3.3등급 ▲서구 2.8등급 ▲북구 3등급 ▲광산구 2.6등급이다.

광주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은 각종 정책사업 추진 효과로 감염병 및 화재 분야의 안전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먼저 남구는 감염병 분야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안전지수 등급이 3등급에서 2등급, 1등급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SNS 및 구청 소식지, 언론 홍보를 통해 계절별 유행 감염병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집단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 개인 위생관리 수준을 살피는 교육용 손 씻기 부 박스 대여사업을 확대해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힘썼다.

여기에 민간위탁 방역업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지 소독 및 폐타이어 구멍 뚫기를 통한 유충 서식지 제거, 지역 경로당 252곳 연중 방역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앞장섰다. 이와 함께 남구는 화재 및 자살 분야에서도 2021년 4등급에서 2022년 2등급으로 두단계씩 각각 상승했다.

건물 공사현장 소방 특별조사 실시를 비롯해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훈련, 송암산단 입주업

체 소방훈련, 시민 참여형 화재대피 훈련, 공동주택 119출동 유도선 설치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피해 최소화과 화재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더불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에서 남구 약사회와 손잡고 생명사랑 약국을 운영하고, 생명 경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각종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작은 사고라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정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안전에 비롯해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동별 찾아가는 치매검사 운영 재개

오는 30일부터 7월14일까지

만 60세 이상 5만7천여명 대상

광주 남구는 코로나19로 중단한 ‘동별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치매 인식 개선과 조기 발견을 통한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 5만7,202명을 대상으로 동별 순회 검진을 실시한다.

동별 찾아가는 치매 검사는 오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치매안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8명으로 전담 검진팀을 구성, 치매 인지선별 검사(CIST) 및 결과 상담 등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만 60세 이상 주민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 행정복지센터 순회 검진 날짜에 맞춰 방문하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인당 검진 소요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대기 시간은 대기자 수에 따라 유동적이다.

동 행정복지센터별 검진 날짜는 ▲양림동 3월 30~31일 ▲방림1·2동 4월 13~14일 ▲봉선1동 4월 20~21일 ▲봉선2동 4월 27~28일 ▲사직동 5월 11~12일 ▲월산동 5월 19일과 22일 ▲월산4동 5월 26일과 29일 ▲월산5동 6월 1~2일 ▲백운1동 6월 8~9일 ▲백운2동 6월 14일 ▲주월1동 6월 21일과 23일 ▲주월2동 6월 29

~30일 ▲진월동 7월 3~4일 ▲효덕동 7월 6~7일 ▲송암동 7월 10~11일 ▲대촌동 7월 13~14일이다. 다만 방림1동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공사로 방림2동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이밖에 남구는 지역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해 올 한해 치매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이외에 관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등지에서 찾아가는 치매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상시 검사를 원하는 주민의 경우 노대동에 위치한 남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는 병원 진단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남구는 최근 구청 1층 북카페에 키오스크 체험존을 마련했다.

/남구 제공

디지털 시대 전환, 키오스크 체험존 운영

광주 남구는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키오스크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구청 1층 북카페에 키오스크 체험존을 마련해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 1,520만원 가량을 투입, 구청 1층 중앙민원실 옆 북카페에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존을 설치했다.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에 익숙한 세대간 경계를 허무는 터치 디스플레이 방식의 키오스크

2대를 배치했으며, 어르신을 비롯해 주민들은 이곳에서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키오스크 활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교육용 키오스크 기기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콘텐츠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영화관, 카페, 공항, 무인발급기, 프랜차이즈, 병원, 은행, 휴게소, 열차, 마트, 주차확인 등 12종류이다.

남구는 체험존에 도우미를 배치해 키오스크 체험을 희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

‘아동 목소리 반영’ 구정참여단 공개 모집

광주시 남구는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1기 아동 구정참여단에 함께 할 단원 4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1기 아동 구정참여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이다.

단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놀이와 여가, 참여 및 시민의식,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교육환경, 주거환경 등 6개조로 나누어 활동한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내 문제와 관련한 자유로운 토론 활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단원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7~18세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민찬기 기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확대

조봉초·대촌중앙초 신규 운영

광주 남구는 교통안전 지킴이 인력도 증원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및 광주시청과 일선 자치구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지역 초등학교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등하굣길 지킴이 사업을 7곳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진행된다.

교통안전 지킴이가 배치되는 학교는 백운초교와 봉주초교, 제석초교, 진제초교, 학강초교, 대촌중앙초교, 조봉초교 7곳이다. 이중 조봉초교와 대촌중앙초교는 올해부터 신규 사업지역으로 포함됐다.

초등학교 7곳에 배치하는 지킴이 인력은 지난해 18명에서 2명 증가한 20명이다.

남구는 지난 10일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모집했으며,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을 거쳐 오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경력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교통안전지도사 및 아동안전지도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서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특히 신규 지원자가 교통안전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체 선발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지난 2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청자를 선발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초등학생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매우 좋다”며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찬기 기자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하이랜드(주)



(주)누리산업개발



(주)나로디엠씨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

www.hinuri.co.kr

